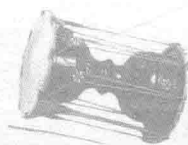


조선족사회의 현황과 미래



정신철 저

조선족사회의 현황과 미래



정신철 저

료녕민족출판사

© 郑信哲 2010

图书在版编目 (CIP) 数据

城市化进程中的朝鲜族社会发展研究: 朝鲜文/郑信哲著. —沈阳: 辽宁民族出版社, 2010. 7

ISBN 978-7-80722-982-7

I. ①城… II. ①郑… III. ①朝鲜族—社会发展—研究—中国—朝鲜语(中国少数民族语言) IV. ①K281.9

中国版本图书馆 CIP 数据核字 (2010) 第 144821 号

出版发行者: 辽宁民族出版社

(地址: 沈阳市和平区十一纬路 25 号 邮编: 110003)

印刷者: 沈阳航空发动机研究所印刷厂

幅面尺寸: 170mm×240mm

印 张: 17.5

字 数: 300 千字

出版时间: 2010 年 7 月第 1 版

印刷时间: 2010 年 7 月第 1 次印刷

责任编辑: 金顺玉

封面设计: 杜 江

责任校对: 李 京

定 价: 38.00 元

联系电话: 024-23284348

邮购热线: 024-23284335

<http://www.lnmzcs.com>

如有印装质量问题, 请与承印厂调换

책을 내면서

조선족은 두만강, 압록강을 넘어 조선반도에서 이주해온 민족이다. 과거 100여년간 조선족은 강한 생명력과 꾸준한 노력으로 중국사회에서 공인받는 우수한 민족의 하나로 성장하였다. 그리고 조선족은 한족인구가 절대다수 차지하고 한문화가 주체를 이룬 중국에서 지금까지 자기 민족의 전통을 완전하게 지켜왔다.

하지만 중국의 개혁개방은 조선족의 전통거주구조와 생활양식을 다각도로 개변시켰다. 과거 조선족은 사회생활에서 상대적으로 집결된 지역에서 민족내부의 교류를 위주로 하여왔다. 그러나 개혁개방은 조선족사회의 민족적 울타리에 커다란 구멍을 뚫어놓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시장의식이 싹트고 경제리익추구에 발동이 걸린 조선족은 민족집거범위를 벗어나 활동영역을 전국 각지 나아가서는 세계 각국으로 넓혀왔다. 이것이 바로 동북집거지역의 조선족농민들의 도시진출이자 산해관이남지역진출이었으며 한국을 비롯한 해외진출이었다.

조선족의 동북지역과 농촌탈출은 현재 심각한 문제들을 초래하였는바 민족교육의 기본장소인 조선족학교가 날로 줄어들고 장가들 나이의 총각들이 결혼대상자가 없어 고민하고있으며 공직을 지향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 조선족간부래원이 고갈되어가고있다. 그리고 집거지역의 조선족인구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옛날 그들이 모여살던 농촌은 날로 쓸쓸해가고있다. 원래 소수에 속하는 조선족에게 있어서 이러한 문제들은 민족특성의 약화를 초래하였으며 결국에는 민족동화의 길을 다그치는것과 다름없게 되었다. 이와 같이 조선족사회는 “위기설”, “해체설” 등이 돌 정도로 심각한 진통을 겪고있다.

물론 조선족사회발전도상에는 불리한 요소만 있는것이 아니다. 조선족은 문화자질이 높고 변화에 잘 적응하는 능력을 갖고있을뿐만아니라 자기 민족의 현황을 잘 파악하고 원활히 대응하는 능력도 갖고있다. 또 조선족은 30년간의 시장진출에서 민족의 경제실력을 키워왔으며 외계와의 접촉에서도 민족의식이 강화되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것은 다민족국가에서 민족이 동화되지 않고 살아남으려면 반드시 민족특성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민족의 특성을 보존하려면 민족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지위를 확고해야 하는바 이 길은 오직

2 조선족사회의 현황과 미래

선진민족으로 부상하는 길밖에 없다.

선진민족이라고 할 때 그 민족은 경제, 문화가 발달하고 영향력 있는 과학자, 경제인, 고위층 령도 등이 많은 특징이 있다. 이로 인해 민족적 긍지와 자신감은 자연히 증가하게 되고 자기 민족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도 더욱 강렬해지기 마련이다. 때문에 선진민족으로 향상해야만 우리는 인구로는 비록 소수에 속하지만 기타 민족에게 동화되지 않고 자기의 민족특성과 정체성을 지켜나갈수 있게 된다.

인구분포도의 변화는 도시민족교육의 필요성과 절박성을 부각시켰고 도시거주민족성원들의 각종 형식의 모임은 민족적연대감 증대에 필요하다. 특히 도시민족교육은 민족문화계승에 없어서는 안되는 요소이고 도시의 민족모임은 교류의 장소로서 서로의 연대감을 깊이하며 민족의식을 자각케 한다. 그리고 우리 민족이 “농민”에서 “시민”으로 탈바꿈하는 과정에서 도시의 민족집거지형성에도 신경을 쓸 때가 왔다.

현재 우리앞에는 도전과 기회가 동시에 기다리고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민족이 위축되거나 발전될수도 있다. 민족의 모든 성원들이 모두 각성하고 힘을 합쳐 당면한 문제들을 제때에 해결하며 민족사회성장을 위하여 노력한다면 우리는 위기를 지혜롭게 피면하고 아름다운 앞날을 펼쳐나갈수 있을것이다. 필자의 노력도 민족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다행스런 일이다.

그동안 필자는 중국에 살고있는 여러 민족의 다양한 변화와 발전에 대하여 틈틈이 중국어 또는 조선어로 여러 학술지와 신문에 실어왔다. 이번에 조선어로 된 조선족연구 문장들만 뽑아 책으로 묶는다. 다소 중복된 관점과 자료가 있기는 하나 각 문장의 완벽성을 깨지 않기 위하여 될수록 적게 삭제하였다. 독자들의 량해를 바란다.

책이 출간되기까지는 여러 사람의 도움이 많았다. 이 기회를 빌어 고마움과 감사의 뜻을 표하는바이다.

2010년 5월 연구실에서

정 신 철

차 례

종합론

중국의 민족정책과 조선족사회의 변화발전	3
조선족사회의 현황과 미래	16
도시화과정과 민족의 발전	31
인구이동에 따른 영향과 민족적네트워크형성에 대한 역할	35
민족적경제력제고에 관한 사고	40
조선족인구의 마이너스증장이 민족발전에 끼친 부정적영향	46
중국의 농촌정책과 조선족농민들의 토지보존문제	53
조선족의 조국관, 민족관 및 고국관	60
조선족도시공동체구축에 관한 연구구상(제강)	71
조선족(문제)연구센터의 설립 이유와 구상	75

문화교육론

조선족 문화와 교육발전의 현황 및 대책	81
조선족교육발전과정에서의 문제와 대책	101
도시민족교육의 필요성과 절박성에 대하여	
—북경시 조선족교육을 중심으로	109
산해관이남지역 조선족교육 현황 및 대책	115
조선족 인구이동과 도시민족교육문제에 관한 연구	
—산둥성 청도시 조선족교육실천을 실례로	137

한국과의 관계론

조선족과 한국	151
조선족교육발전에 끼친 한국경제문화의 영향	163
재한중국인의 노동취업과 문화적응 연구	
—재한조선족을 중심으로	169
북경 왕징지역의 “Korean타운”현황조사	
—한국인과 조선족, 한족 사이의 관계를 중심으로	198

2 조선족사회의 현황과 미래

조선족의 “국적회복”문제에 관한 반성	215
----------------------------	-----

시론

조선족사회, 어디로 가야 하나?	221
우리에게는 그래도 희망이 보인다	225
전통집거지는 조선족의 “대후방”	228
땅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230
장원한 타산과 지속적인 개척정신이 필요	233
조선족의 정체성에 관하여	235
우리의 주체성을 지켜야	238
조선족의 불량소비현상에 대한 검토	240
한국방문취업제를 둘러싸고	244
방문취업제에 따른 한국어시험에 대한 단상	247
한국의 재증동포정책, 이래도 믿어야 되는지?	249
혼란스러운 “방문취업제”	251
“화합과 공존”의 리념을 위하여	253

평론

조선족사회현황과 한국의 련관성 ——조글로명사미니홈에 실은 글에 대한 평가	257
조선족사회에 대한 유익한 탐색	268

기자수기

“조선족사회의 진로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는 나의 밀어버릴수 없는 사명” ——중국사회과학원 민족학 및 인류학연구소 정신철연구원의 추구	273
---	-----

중국의 단속정책과 조선경시회의 — 원화발전

서언

종 합 론

조선의 단속정책은 단속정책의 원리와 원리를 공표한

조선의 단속정책은 단속정책의 원리와 원리를 공표한



중국의 민족정책과 조선족사회의 변화발전

1. 서언

민족문제는 다민족국가의 하나인 중국에서 항상 중요한 위치에 놓여있다. 중국공산당과 중국정부는 일찍부터 소수민족의 경제, 사회, 문화 등 방면의 발전을 관심하면서 민족평등정책, 민족지역자치제도, 민족경제발전정책, 민족문화유지와 발전정책 등 제반 정책들을 제정하고 실시함으로써 중국민족문제의 원활한 해결에 많은 심혈을 기울였으며 중국소수민족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조선족사회도 역시 중국정부의 민족평등정책의 지도하에 상대적안정속에서 많은 발전을 가져왔다. 하지만 개혁개방이후 조선족사회는 격동의 시대를 맞이하였고 대량의 인구이동은 전통집거지역의 축소, 민족교육의 약화, 민족문화의 소실 등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였다. 가령 이러한 문제들을 원활히 해결하지 못하면 다민족국가 중국에서 인구가 많지 않은 조선족사회는 점차 빛을 잃게 될것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중국정부의 민족문제해결을 위한 노력과 조선족사회가 어떻게 중국이란 큰 틀안에서 민족성을 유지하면서 더욱 발전 하겠는가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2. 중국소수민족사회의 다양성과 민족문제의 중요성

중국은 다민족국가이며 960만평방킬로메터의 면적을 갖고있다. 여기에는 광활한 평원, 끝없는 초원, 무성한 삼림, 적막한 사막 등이 많이 분포되어 있다. 2005년 중국의 한족인구는 118,295여만명으로 중국 전체인구의 90.56% 차지하고 기타 55개 민족인구는 12,333여만명으로 중국 전체인구의

4 조선족사회의 현황과 미래

9.44% 차지하였다. 중국에서는 일반적으로 한족을 제외한 55개 기타 민족을 “소수민족”이라고 부른다.

중국 각 소수민족의 규모를 놓고 볼 때 1000만명이상의 민족이 2개이고 1000만명이하 100만명이상의 민족이 16개에 달하며 100만명이하 10만명이상의 민족이 17개이고 그외에는 10만명미만의 민족들이다. 소수민족가운데 인구가 제일 많은 민족은 좡족으로서 약 1600여만명이고, 제일 적은 민족은 로바족으로 2900여명밖에 되지 않는다.¹⁾ 중국소수민족들은 인구차이와 그들이 처한 지리적, 역사적 등 요소로 민족사회발전의 불평형성을 나타내고있다.

중국소수민족은 중국 전 지역에 모두 분포되어있고 그들의 주거환경과 생산방식 등의 다름으로 생활양식과 문화도 다양하다. 그들은 농경, 유목, 어업 등 생산방식과 주거, 민속, 종교 등 생활문화에서도 다양성을 보이고있다.

그리고 중국의 소수민족은 거의 변강지역에 분포되어있다. 룡지변경선 2.2만킬로메터가운데 1.9만킬로메터가 소수민족지역에 속하여있다. 변강지역 135개 현가운데 107개 현이 민족자치지역이며 변강지역 총면적 212만평방킬로메터가운데서 소수민족지역이 92% 차지하고 변강지역인구 2050여만명가운데서 소수민족이 51% 차지한다. 중국변강지역은 14개 나라와 린접되어있으며 국경을 탄 민족이 30여개나 된다.

한족이 대다수인 중국에서 기타 민족 인구는 많지 않으나 절대수는 적지 않으며, 민족집단이 다양하고 그 분포지역도 광활하다. 때문에 정치, 경제, 종교 등 요소와 혼합되어있는 민족문제는 변강지역의 안정과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다.

3. 민족문제해결을 위한 중국의 적극적인 대책

중화인민공화국 성립이후 중국정부는 민족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민족문제해결에 많은 심혈을 기울였다.

먼저 중국정부는 민족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민족식별사업을 진행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당시 중국의 소수민족인구는 약 3400만명이였다. 그때 민족호칭도 아주 다양하였는데 일부는 타칭이기도 하고 일부는 자칭이기도 하였으며 지어는 하나의 공동체에도 부동한 호칭이 있었다. 1953년 제 1차 전국인구조사통계때 전국 각 지역의 민족집단들이 제출한 민족호칭은

1) 중국 제5차 인구조사통계자료에 근거함. 国务院人口普查办公室、国家统计局人口和社会科技统计司编:《中国2000年人口普查资料》, 中国统计出版社, 2002年.

400여개나 되었으며 운남성만 하여도 260여개나 되었다.²⁾ 때문에 민족식별 사업이 민족정책 제정과 실시의 기초로 되었다.

민족식별에서 먼저 한족과 소수민족을 분별한 다음 단일소수민족을 분별하고 또 어느 소수민족의 일부인가를 분별하였다. 중국정부는 1950년부터 해당 전문가, 학자들을 조직하여 민족식별사업을 진행하였는데 대규모적인 식별사업은 1953년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중국정부는 현지조사연구를 거쳐 400여개의 민족호칭가운데서 먼저 38개 소수민족을 확인하였다. 이가운데는 이미 확정된 11개(몽골족, 회족, 장족, 위글족, 묘족, 요족, 이족, 조선족, 만족, 리족, 고산족) 민족도 포함되었다. 1954년에서부터 1964년 제2차 전국 인구조사때까지 1953년 전국인구조사에서 남은 183개 민족집단가운데서 또 16개 소수민족을 확인하였는데 당시 중국의 소수민족수는 54개에 달하였다. 그후 1979년 운남성의 지노족을 확인하여 현재 55개 소수민족을 구성하고 있다. 이것으로 중국소수민족에 대한 확인사업은 기본상 마무리하였다. 하지만 현재까지 미확정 민족의 인구수는 약 70여만명에 달한다.

그 다음 중국정부는 국내민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민족지역자치제도를 비롯한 많은 정책을 제정, 실시하였다. 민족지역자치제도는 중국의 기본 정치체도의 하나로 민족문제해결의 기본정책이다. 민족지역자치는 국가의 통일관할하에 소수민족집거지역에 지역자치를 실시하고 자치기관을 설립하여 자치권을 행사하는것이다. 현재 중국은 민족지역자치제도에 5개 자치구, 30개 자치주, 125개 자치현을 설립하였는바 55개 소수민족가운데 44개 민족이 지역자치를 실행하였으며 이에 해당하는 인구는 소수민족 총인구의 75%에 달하였고 민족자치지역 면적은 중국 전체면적의 64%에 달하였다.³⁾

그리고 민족경제발전, 민족문화보존, 민족교육추진, 민족간부양성 등 영역에서 많은 정책과 조치를 실시하여 민족지역의 경제와 사회발전을 추진하였고 많은 성과를 취득하였다.

개혁개방이후 과거에 제정한 일부 정책이 신속한 사회변화에 적응되지 않아 유명무실한것도 없지 않다. 그리고 새로운 변화에 맞추어 새 정책들도 제정, 실시하였다.

그 주요한 실천으로 첫번째는 1992년부터 실시한 “전국 만리변강문화복도 건설”공정이다. 이에 포함된 지역은 소수민족이 집결한 광서, 운남, 서장, 신강, 내몽골, 흑룡강, 길림, 료녕, 복건 등 9개 성, 자치구이다. 중국정부와

2) 江平主编:《中国民族问题的理论与实践》, 中共中央党校出版社, 1994年, 第37页。

3) 吴仕民主编:《中国民族理论新编》, 中央民族大学出版社, 2008年, 第206页。

6 조선족사회의 현황과 미래

지방정부에서는 많은 자금을 투자하여 변강지역에 문화실, 도서관 등 공중문화시설을 마련하고 변강지역 거주민들의 문화생활을 풍부히 하는데 그 목적을 두어 변강지역 1000여만명의 각 민족인구가 직접적인 혜택을 받았다.

두번째는 1999년 국가민족사무위원회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국가재정부 등 해당 부서와 공동히 발기한 “흥변부민행동”이다. 이것은 하나의 변경건설공정으로 룡지변경지역 136개 현과 신강건설병단 58개 변경련대가 포함되며 그 인구는 2100만명이고 해당면적은 190만평방킬로미터에 달하였다. 이 공정의 목적은 변경지역을 진흥하고 변강주민들을 부유하게 한다는데 있다. 1999—2005년사이 중앙과 지방정부에서 모두 150억원을 조달하여 2만여개 건설항목을 실시하였다. 2007년에는 “흥변부민행동 11차 5개년 계획”까지 제정하고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중앙재정의 흥변부민보조금은 2000년의 1500만원에서 점차 증가하여 2009년에는 4.84억원에 달하였고 10년간 루적자금은 15.09억원에 달하였다.

세번째는 22개 약소민족발전을 부촉하는 정책을 제정하고 실천에 착수하였다. 22개 약소민족의 전체 인구는 63만명으로 소수민족 총인구의 0.4%에 불과하나 그들의 분포지역은 10개 성의 86개 현, 238개 향, 640개 행정촌에 달하고 대부분 서북지역과 변경지역에 분포되어있으며 이 가운데 16개 민족은 과경민족에 속하였다. 중국정부는 2005년에 약소민족발전사업회의를 열고 “약소민족발전을 부촉하는 계획”(2005—2010년)을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물론 중국의 민족문제해결은 민족문제의 다양성, 복잡성, 민감성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있다. 개혁개방이후 소수민족지역발전문제 및 소수민족인구이동에서 비롯한 새로운 문제들이 많이 제기되고있다. 레컨대 시장경제체제와 소수민족경제사회발전의 관계문제, 소수민족지역경제와 자원개발리용의 관계문제, 변경지역의 사회안정문제, 도시에서의 소수민족이동인구의 권리보장문제, 소수민족이동인구 자녀들의 민족교육문제, 도시민족관계문제 등 많은 문제들이 해결을 기다리고있다. 다민족국가의 중국은 민족문제에서도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고 갈 길은 아직도 멀다.

4. 조선족에 관한 정책연혁

조선족은 조선반도에서 건너온 이주민족에 속한다. 조선족 선조들은 중국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중국동북변강지역을 개척하였고 중국의 신민주주의혁명에 적극 참가하였으며 항일전쟁과 국내해방전쟁에서도 크게 기여하였다. 즉

“중화인민공화국의 구성원의 하나인 동북조선민족은 바로 간고한 30—40년 반침략의 혁명력사투쟁의 과정에서 수많은 피를 흘렸고 수많은 생명을 희생하였으며 부지런히 생산하고 열심히 전선을 지원하여 항일전쟁과 인민해방전쟁의 승리를 이룩하면서 자연히 형성된것이다.”⁴⁾

조선족은 그 형성의 특수성으로 중국공산당이 조선족에 대한 정책도 처음부터 명확한것이 아니였고 일정한 과정을 겪었다.

중국공산당은 초창기부터 민족문제를 주목하였다. 중국공산당은 1922년 제2차 전국대표대회에서 민족강령을 제정하고 “국제제국주의의 압박을 뒤엎고 중화민족의 완전한 독립을 달성하며” 각 민족 평등의 “련방공화국”을 건립할것을 주장하였다.⁵⁾ 또 1928년 제6차 전국대표대회에서는 “민족자결권을 승인한다”는 구호를 제출하였다.⁶⁾

이후 중국공산당은 각 시기마다 민족문제에 대한 정책을 보충하고 풍부히 하였으며 1949년 제1차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는 민족지역자치를 중국민족문제해결의 기본정책으로 당시 헌법을 대행한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공동강령”에서 명확히 규정하였다.

조선족에 대해서도 중국공산당은 민족평등의 원칙하에 조선족을 중국내의 소수민족으로 승인하고 조선족에 관련된 많은 정책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조선족의 국제성과 복잡성때문에 중국공산당의 이에 대한 리해가 일정한 시일이 걸렸다. 따라서 조선족에 대한 정책을 확정하는데도 여러 단계가 있었는데 주요하게 세 단계로 나눌수 있다.

첫번째 단계는 20세기 20년대후반부터 30년대초반이다. 1927년이전까지 조선족에 대하여 중국공산당은 거의 주목을 하지 않았다고 할수 있다. 그 리유는 지금까지 1927년이전의 중국공산당 력사문헌에서 조선족문제를 직접 언급한 글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당시 동북지역의 혁명에서 조선공산당이 주체였으며 중국공산당의 세력은 아주 미약하였기때문이다. 1927년 10월 중공만주성립시위원회가 설립되고 이듬해 9월에 중공만주성위원회가 정식으로 설립되어서 중공만주성위원회와 중공중앙의 문헌에 조선족에 관한 내용이 자주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1927년 10월 중공만주성립시위원회는 “만주농민결의안”에서 산둥, 하

4) 陈明: “中国东北境内的朝鲜民族”, 《人民日报》, 1950年12月6日, 第三版。

5) 中共中央统战部编: “中国共产党第二次全国代表大会宣言”, 《民族问题文献汇编》, 中共中央党校出版社, 1991年, 第18页。

6) 中共中央统战部编: “中国共产党第六次全国代表大会通过的政治决议案”, 《民族问题文献汇编》, 中共中央党校出版社, 1991年, 第86页。

8 조선족사회의 현황과 미래

남, 조선에서 온 농민들은 현지의 소작농, 고농, 자작농과 함께 모두 토지소유권을 향수한다고 제출하였다.⁷⁾ 1928년 중공만주성위원회에서는 “만주의 조선농민”이란 문건에서 재만조선농민은 중국농민과 같이 모두 토지소유권과 거주권을 향유하고 혁명정권을 향유하고 재만조선농민은 “우리의 반일우군이요 우리의 만주혁명적 농민의 한 부분이며” 오직 중국의 군벌통치를 뒤엎고 일본침략자를 몰아내야 만주의 조선농민문제를 진정히 해결할수 있으며 이것이 “우리 만주의 모든 농민, 노동자와 만주의 조선농민의 공동한 임무이다”고 지적하였다.⁸⁾ 동년 7월 “중공 제6차 전국대표대회 민족문제에 관한 결의안”에서는 “중국내의 소수민족문제 레컨대 북부의 몽골족, 회족, 만주의 고려인 등은 혁명에 대하여 중대한 의의가 있다”고 지적하고 1930년의 한 결의안에서는 재만조선농민은 반일투쟁의 “주요한 혁명요소이고 현단계 토지혁명의 주요한 동력이다”고 더욱 명확히 지적하였다.⁹⁾

이 시기 조선족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이해는 “교민”, “이민”정도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하지만 중국공산당이 조선족은 동북 기타 민족과 같이 토지, 거주, 재산, 혁명정권 등 경제, 정치상의 평등권리를 향유하고 조선농민은 만주농민의 한 부분이며 반일, 반군벌 투쟁의 주요한 동력이고 유력한 대오라고 지적함과 동시에 반일, 반군벌 투쟁은 동북 각 민족인민의 공동한 임무이며 조선족해방의 길이라고 지적함으로써 조선족의 위치를 긍정하였다. 여기에서 중국공산당은 혁명투쟁에서 조선족의 역할과 중요성을 높게 평가하였다.

두번째 단계는 20세기 30년대초반부터 항일전쟁이 끝날 때까지이다. 1931년 5월 중공만주성위원회는 “만주의 한국민족문제에 관한 결의안”에서 목전 만주의 한국민족이 약 백수십만명 있고 그들은 “만주 소수민족의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이며”, “오직 중국공산당의 령도하에 투쟁하여야만 재만민족이 진정한 해방을 취득할수 있다”고 지적하였다.¹⁰⁾ 1931년 11월 서금에서 개최된 중국공산당의 중화쏘베트 제1차 전국대표대회에서 통과한 “중화쏘베트헌법대강”에서는 쏘베트정권내의 한, 만, 몽, 회, 장, 대만인, 고려인 등은 “쏘베트법률앞에서 모두 평등하고 모두 쏘베트공화국의 공민이며”, 모두 선거

7) 崔洪彬主编: “试论中国共产党对东北地区朝鲜民族共产主义者的基本方针及其影响”, 《朝鲜族研究论丛》4, 延边大学出版社, 1995年, 第132页。

8) 《民族问题文献汇编》, 人民出版社, 1958年, 第478-479页。

9) 杨昭全等编: “满洲省委关于省委少数民族运动委员会对满韩国工农群众运动的决议案草案”, 《东北地区朝鲜人革命斗争资料汇编》, 辽宁民族出版社, 1992年, 第478-479页。

10) 杨昭全等编: “满洲省委关于省委少数民族运动委员会对满韩国工农群众运动的决议案草案”, 《东北地区朝鲜人革命斗争资料汇编》, 辽宁民族出版社, 1992年, 第730, 735页。

권과 피선거권을 향유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중화쏘베트는 몽, 회, 장, 묘, 리, 고려인 등 중국경내에 거주한 소수민족의 완전한 자결권을 승인한다고 선포하였다.¹¹⁾

1939년 모택동은 중국에 몽골족, 회족, 장족, 위글족, 조선족 등 수십개의 소수민족이 있으며 “중국은 다민족으로 구성된 광대한 인구를 가진 하나의 국가이다”고 지적하였다.¹²⁾ 1942년 6월 중국공산당은 섬감령 3성 린접지역내의 각 민족, 례컨대 한족, 회족, 몽골족, 조선족 등은 모두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고 다시 강조하였다.¹³⁾ 이 시기 중공중앙과 모택동으로부터 중공만주성위원회에 이르기까지 동북의 조선족은 중국소수민족의 하나이고 중화민족의 일원이며 중국의 국민이라고 아주 명확히 지적하였다.

조선족은 국내 기타 민족과 같이 정치, 경제, 문화교육, 풍속습관, 종교 신앙자유 등 각 방면에서 평등한 권리를 향유하며 “간도한인민족자치구의 건립”과 “동북조선인의 자치구를 건립하는” 권리가 있으며¹⁴⁾ 조선족은 중국 각 민족인민들과 단합하여 무장항일하고 신중국을 건립할 력사적사명을 갖고 있다고 중국공산당은 강조하였다. 그리고 조선족대표 최정무, 양림은 각기 제1차, 제2차 중화쏘베트 전국대표대회에 참석하였으며 양림은 제2차 중화쏘베트대회에서 중앙집행위원으로 당선되었다. 이 시기 중국공산당은 조선족 문제해결의 원칙을 기본적으로 확립하였다.

세번째 단계는 항일전쟁승리로부터 신중국성립까지이다. 항일전쟁이 승리한후 중국공산당은 공고한 동북근거지건립이 필요하였다. 이에 따라 동북의 조선족과 관련된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문제의 요점은 역시 조선족의 국적문제로 조선족이 조선교민인가 아니면 중국국민인가의 문제였다. 이것은 아주 복잡하고 심각한 문제이며 또 급히 해결하여야 할 실질적문제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조선족이나, 조선교민이나 하는 문제는 그 당시 동북지역에서 여전히 약간의 혼동을 겪었다. 이에 대한 비교적 명확은 규정은 1950년초기에 형성되었다. 1950년 11월 동북인민정부 공안부는 국내조선족과 조선교민의 구분에 대한 규정에서 국내조선족은 “8.15”이전에 동북에 거주한 자와 “8.15”이

11) 《民族问题文献汇编》，人民出版社，1958年，第166页。

12) 《毛泽东选集》第二卷，人民出版社，1991年，第622页。

13) “陕甘宁边区参议会选举条例的解释及其实施”，《民族问题文献汇编》，第700页。

14) 杨昭全等编：“吉东省委致饶河中心县委及四军四团的信”，《东北地区朝鲜人革命斗争资料汇编》，辽宁民族出版社，1992年，第741页。崔洪彬主编：“中共满洲省委‘关于恢复朝鲜人工作的决议’”，《朝鲜族研究论丛》4，第103页。

10 조선족사회의 현황과 미래

후 조선에 돌아갔다가 다시 동북에 왔으며 동북에 가옥, 토지와 상업경영이 있는 자 혹은 직계친족이 있는 자 또는 “8.15”이후 토지와 가옥을 배분받고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자 등이 포함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1953년 8월 17일 중공중앙의 동북구에 대한 지시에 의하면 무릇 중화인민공화국 성립이전 원래 동북경내에 있었고 농촌에서 토지와 가옥을 분배받았거나 또는 도시에서 가업을 갖춘 조선인은 바로 중국국적 조선족이다. 하지만 조선교민으로 등록한 자는 역시 조선교민이며 변경해주지 않는다. 그리고 1949년 10월 1일이후 온 동북경내거주자는 모두 조선교민이라고 규정하였다.

5. 조선족은 중국 다민족국가의 어엿한 일원

19세기중엽이후 조선족선조들이 중국에 대량으로 이주하기 시작하면서 점차 정착하게 되었지만 그들의 귀속은 명확하지 않았다. 즉 국적이 명확하지 않았다는것이다. 조선족의 중국국적문제는 과거 청나라와 “중화민국”정부에서 다분적은 있으나 일관성이 없었다.

일찌기 조선족 국적문제를 주목하기 시작한 중공중앙 동북국은 1945년 9월말에 조선족의 상황을 역사적각도에서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이곳의 조선족은 중국의 소수민족이며 그들은 한족과 같이 평등한 권리와 의무를 향유한다고 인정하였다.¹⁵⁾

1946년 1월 1일, 당시 연변전원공사 부전원인 동곤일은 새해 “신년헌사”에서 “현재 우리 연변지역의 민주정권은 이미 건립되었다. 의심할바없이 연변지역에 거주하고있는 한인은 반드시 정부의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동시에 정부의 법률적보호를 받는다. 중국국적에 가입하려는 한국인은 입적할 수 있으며 중화민국 국민으로 될수 있다. 이렇게 조족(朝族)은 중화민족가운데 하나의 소수민족으로 될수 있다. 우리 정부는 민족평등원칙에 근거하여 조선족으로 하여금 정치, 경제와 문화상에서 해방과 발전의 권리를 향유하도록 하며 민족언어문자, 풍속습관, 종교신앙 등도 똑같이 존중을 받는다”고 강조하였다.¹⁶⁾

그리고 1946년 12월에 개최한 중공길림성위원회 민족사업회의에서는 당

15) 韩俊光等主编：“解放战争期间的延边朝鲜族人民”，《中国朝鲜族历史研究论丛》II，黑龙江朝鲜民族出版社，1992年，第295页。

16) 延边朝鲜族自治州档案馆编：“新年献辞”，《中共延边吉敦地委延边专署重要文件汇编》(1945.11-1949.1)第一集，1985年，第8页。